

전남당구, 2022 고성군수배 대회서 금빛 스트로크

‘당구 천재’ 김행직 정읍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
스누커 박용준 우승·포켓볼 장문석-서서아 준우승

전남당구가 지난 정읍 전국당구선수권에 이어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전남당구연맹(회장 조호석)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2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캐롬 3쿠션 남자일반부에 참가한 ‘당구천재’ 김행직(전남당구연맹)은 8강전에서 김형근(서울당구연맹)을 50:26(20이닝)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 김행직(전남당구연맹)은 하이런 9

점 장타를 2번 펼치며 정승일(서울당구연맹) 50:32(26이닝)으로 압도하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이충복(시흥시체육회)을 상대로 하이런 8점을 기록하며 50-46(37이닝)으로 점진 끝에 승리를 하며 지난 정읍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전국을 제패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며 서울3쿠션월드컵 정상에 도전한다.

포켓볼 복식에서는 장문석-서서아(전남당구연맹)가 지난 정읍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했으나 결승전에서 치열한 점진 끝에 박기찬-한소예(울산당구연맹)에게 7-8로 아쉽게 패하



캐롬 3쿠션 김행직 스누커 박용준 포켓볼 복식 서서아-장문석

며 준우승,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서 서서아는 10볼 여자일반부에 참가해 진해주(대전당구연맹), 임유미(서울시청)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고, 스누커에서는 박용준이 참가해 ‘우승후보’인 이대규(인천광역시체육회)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호석 전남당구연맹 회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남당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여서정, 전국체조선수권 대회 개인종합·도마 2관왕

영광스포츠육서 개최...전체 1위

한국 기계체조 올림픽 메달리스트 여서정(20·수원시청)이 2022 전국대학·일반체조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여서정은 21일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끝난 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종합과 도마 종목에서 우승했다.

여서정은 도마-이단평행봉-평군대-마루운동 4개 종목을 다 뛰는 개인종합에서 51.300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엄도현(제주삼다수·49.650점)이고, 3위는 이윤서(경북도청·48.100점)다. 이로써 전남 주 종목인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2.583점으로 우수한 여서정은 대회 2관왕에 성공했다.

여서정은 이번 대회 마루운동(12.000점)과 이단평행봉(12.533점)에선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다. 평균대는 7위(9.457)에 그쳤다.

여서정은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도마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이경훈, 부담감 극복하고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 수확
“기록·랭킹에 대한 생각 거의 하지 않아”

이경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진출권을 따낸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경훈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밍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BMW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 4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했다.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친 이경훈은 페덱스컵 랭킹 26위에 올라서 30위까지 주어지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페덱스컵 랭킹 31위로 아쉽게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했던 이경훈은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대결하는 최종전에 참가하게 됐다.

이경훈은 “솔직히 이번 주 부담이 많이 됐다. 작년에 31위로 끝난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오늘은 내 기록이나 랭킹에 대한 생각이 거의 하지 않았다.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첫 4개 홀에서 시작이 좋았고, 그 이후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4일 내내 첫 홀에서 버디가 나왔다. 그리고 2번째 홀도 버디를 칠 수 있었다. 3번째, 4번째 홀까지 버디를 치니 이미 4언더파였다. “오늘은 약간 풀리는 날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끝까지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 좌절된 것에 대해 “31위는 정말 잔인한 결과다. 31위를 했을 때 슬펐지만, 다시는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프레지던트스텝 출신 의지도 다졌다. 그는 “프레지던트스텝에 꼭 가고 싶다. 스스로가 욕심을 부려보고 있다.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다”고 각오를 보였다.

뉴시스

김태균·박재홍·박경완·홍성흔, KBO 40인 레전드 선정

꾸준한 활약 펼친 레전드들

재능과 꾸준함을 무기로 KBO리그를 수놓았던 이들이 레전드 40인에 가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김태균(14위), 박재홍(17위), 박경완(23위), 홍성흔(36위)이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벌명’ 김태균은 일본에 진출했던 두 시즌을 제외하고 한화 이글스에서 18시즌을 뛰었다. 그가 보유한 수많은 별명이 말해주듯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선수다.

힘과 기술을 겸비했던 중장거리 타자였지만 김태균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출루 기록을 통해 가장 잘 증명된다.

KBO리그 역대 3위에 해당하는 0.421의 통산 출루율을 기록한 선수답게 2016년 8월7일 NC 다이노스전부터 2017년 6월3일 SK 와이번스전까지 무려 86경기 연속 1루를 밟으며 리그 최다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달성했다.

2016시즌 기록한 310번의 출루는 단일 시즌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2012시즌부터 2014시즌까지 3시즌 연속 출루를 부문 타이틀을 차지했고 2016시즌에도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까지 단 7명의 선수밖에 달성하지 못한 13시즌 연속 100안타 및 14시즌 연속 10홈런 기록은 ‘이글스의 심장’ 김태균의 성실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지표다.

KBO리그 통산 타율 6위(0.320), 안타 3위(2,209개), 타점 5위(1,358개), OPS 5위(0.937)

등 족적을 남긴 김태균은 전문가 투표에서 130표(66.67점), 팬 투표에서 35만5881표(6.52점)를 받아 총점 73.18로 레전드 40명 중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리틀 쿠바’ 박재홍은 호쾌한 스윙으로 리그를 폭격했다. 데뷔 시즌 기록한 30홈런과 108타점은 각각 역대 신인 최다 홈런과 타점 기록으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이 시즌 박재홍은 30개의 홈런과 더불어 36도루를 기록, KBO리그 역대 최초 30홈런-30도루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신인으로 달성했다.

이후 1998시즌과 2000시즌, 두 차례나 추가로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며 호타준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2000시즌에는 타율 0.309, 32홈런, 30도루를 기록하면서 40년 KBO 역사에서 6번 밖에 없는 3할-30홈런-30도루라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재홍은 전문가 투표에서 118표(60.51점), 팬 투표에서 43만6164표(7.99점)를 받아 총점 68.50으로 레전드 순위 17위에 올랐다.

‘영원한 안방마님’ 박경완은 KBO리그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포수로 불린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SK의 유일한 영구결번 선수로 남은 박경완은 뛰어난 공력과 수비, 투수 리더 능력까지 갖춰 전성기 시절 팀 전력의 절반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마운드에 선 투수의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순발력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볼 배합은 역대 포수 중 최

고라는 평이 따랐다.

통산 도루 저지율은 0.382로 500경기 이상 포수로 선발 출장한 선수들 중 2위에 올라 있다. 타석에서는 314개의 홈런을 때려 역대 포수 중 유일하게 통산 300홈런을 넘어섰다.

포수 최초로 40홈런을 기록하며 MVP에 올랐던 2000시즌에는 5월 19일 한화전에서 KBO 리그 최초로 4연타석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대회에서는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 안방마님으로 든든한 역할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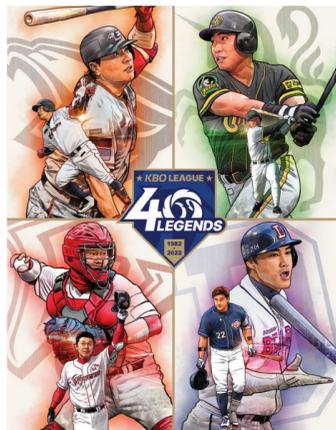
박경완은 체력소모가 큰 포수였지만 2044경기(통산 11위)에 출전하며 화려한 커리어를 마감했다.

전문가 투표에서 108표(55.38점), 팬 투표에서 37만9556표(6.95점)를 획득해 총점 62.33으로 레전드 순위 23위를 차지했다.

현역시절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클럽하우스 리더이자 파이팅 넘치는 투지의 대명사로 꼽혔던 ‘홍포’ 홍성흔은 KBO리그 역사상 우타자 최초 2000안타를 달성한 타자였다.

한국야구 대표팀의 드림팀 1기호 불리는 1998 방콕아시안게임에 대학생으로 참가해 금메달 획득에 일조하는 등 아마추어시절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포수왕국 두산에서 데뷔, 첫 해부터 16홈런, 63타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신인상을 수



김태균·박재홍·박경완·홍성흔이 KBO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 (사진=KBO 제공)

상했다. 이후 2001년과 2004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로 성장했다.

홍성흔은 주 포지션을 지명타자로 변경한 뒤 타격에만 집중하며 2008년부터 4년 연속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수상,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올라섰다.

통산 2046안타(13위)와 1120타점(12위)을 기록한 홍성흔은 전문가 투표에서 69표(35.38점), 팬 투표에서 46만3643표(8.49점)를 얻어 총점 43.87로 레전드 순위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24명의 레전드를 공개한 KBO는 남은 시즌 추가 16명을 소개할 예정이다.



3개도시 시니어 교류전 순천에서 열려
팔마보조구장에서 창원60유나이츠·여수60취미·순천600B

3개도시(창원60유나이츠 회장 김성겸, 여수60취미 회장 김석철, 순천600B회장 오세훈) 초청 교류전이 21일 순천팔마보조구장에서 열렸다. 이날경기에는 1백여명이 참석했다.

창원60유나이츠 김성겸 회장과 순천600B 이부열 감독과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로, 여수60취미와는 오랜 파트너로 순천600B가 초청하여 경기가 열리게 됐다는 것.

창원60유나이츠 김성겸 회장은 “초청해 줘서 고맙다. 날씨도 좋고 훌륭한 경기장에서 젊은 시절 순천600B 이부열 감독과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로 연락이돼 경기를 하게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경기를 자주 만들어 영 호남 친선경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여수60취미 김석철 회장은 “순천600B팀과는 오랜 파트너로 오늘 창원60유나이츠팀과 교류전을 갖게돼 기쁘다”며 “한사람도 다친 사람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600B 오세훈 회장은 “멀리 창원에서 인접 여수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 우리 순천은 일제 강점기 부터 축구로 유명도시다.”면서 “오늘하루 준비한 스케줄에 따라 기운이 넘치고 활기찬 하루, 서로 인연을 맺는 화기에에 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각 팀 당 6경기를 소화해 보는 이들로 노약장을 과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나폴리 김민재 2경기만에 데뷔골, 만점 수비는 ‘덤’
몬차와 흥경기서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으로 헤딩골...4-0 승리 견인

김민재(SSC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데뷔 두번째 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것도 홈 데뷔전이었다. 물론 만점 수비는 덤이었다.

김민재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몬차와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A 2라운드 흥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터뜨렸다.

전반과 후반에 나란히 2골씩 넣은 나폴리는 승격팀 몬차를 상대로 4-0 완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전문사이트 후스코어 드닷컴은 김민재에게 7.8점을 매겼다.

김민재는 나폴리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들어섰다. 김민재는 홈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상대팀 몬차의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사실상 몬차는 김민재를 비롯한 나폴리의 탄탄한 수비에 맥을 추지 못했다.

나폴리도 전반이 끝나기 전에 2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반 초반 즐기차게 몰아치기도 몬차의 골문을 열지 못했던 나폴리는 전반 35분 지엘린스키의 패스를 받은 크바라츠헤리아의 멋진 감각이 중거리포로 몬차의 골문을 열었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주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추가골까지 나왔다.

기선을 제압한 나폴리는 후반 17분 다시 한번 크바라츠헤리아의 득점포로 3골차까지 앞서나갔다. 몬차가 한 차례 골문을 열긴 했지만 VAR 판독 결과 안드레아 페타나가 골을 넣기 직전 나폴리 선수를 밀어 넘어뜨리는 파울이



나폴리의 김민재(왼쪽)와 몬차의 안드레아 페타나가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스타디오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A 2라운드 맞대결에서 볼다툼을 하고 있다.

발견돼 취소됐다. 후반 추가시간 6분이 선언된 가운데 김민재는 몬차 진영 페널티 지역까지 들어가 코너킥에 이은 헤더로 골을 기록했다. 동료 선수들은 물론 루치아노 스파레티 감독도 데뷔골을 축하하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